섬진강 매화와 벌교 꼬막

기고

주현진
시인·수필가

남도의 새 봄이 드디어 열리고 있다. 봄을 전해주는 매화도 만개했다. 자연스레 눈과 귀가 섬진강변으로 향한다. 섬진강변은 우리나라에서 봄이 가장 먼저 찾아와 가장 길게, 아름답게 펼쳐지는 곳이기도 하다. 오는 3월21일은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뜻 깊은 날이다. 3년 전 이 날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여 완쾌가 된 나로서는 제 2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두 번째 생일로 기념하는 날이다. 나는 이날 남도의 꽃길을 찾아 섬진강변을 찾았다. 차창으로 밀려드는 바람결에서 따스한 봄의 기운이 묻어난다. 겨우내 황량하던 들판도 어느새 녹색의 싹을 틔우고 있다. 강변의 자투리땅을 갈아엎는 경운기의 엔진 소리도 힘차다. 길섶에서는 봄 까치 풀이 무리지어 꽃을 피워 올리고 길가의 노란 민들레도 꽃 웃음으로 봄의 낭만이 더욱 가득해진다.

매화 꽃무더기를 섬진강변에서 만났다. 강변의 송정공원과 탑골공원에 많이 피었다. 매화의 하얀 꽃물결이 소학정마을과 다사마을을 거쳐 외압마을과 내압마을까지 일렁인다. 지리산을 앞에 두고 섬진강변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이다.노란 산수유 꽃도 봄꽃의 행렬에 가세했다. 구례군 산동면에서는 산수유 꽃 축제가 한창이었다. 섬진강 유래비가 있는 강변 수월정에서 내려다보는 풍치가 멋스럽다. 매화와 어우러진 강물이 매향에 젖어 유유히 흐른다. 상춘객들의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오른다.

섬진강변 매화의 진원지는 청 매실 농원이라고 한다. 3대에 걸쳐 매화를 가꿔오고 있다. 농원을 지키는 홍쌍리 여사는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매실의 대표 브랜드로 만든 명인이다. 농원을 가꾸면서 밤나무를 더 지키려는 시아버지와 매실나무를 더 심자는 며느리 사이의 갈등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엔 밤 한 가마를 팔면 쌀 두세 가마를 살 수 있었기에 매실은 거들떠보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홍 여사는 매실의 효능을 직접 체험했다. 한 한의사가 소개해 준 매실발효액으로 관절염을 치료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매실도 사람의 뱃속을 깨끗이 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한다. 홍 여사는 약으로 쓴 매실을 밥상에 올리려고 매실을 장아찌로 만들었다. 매실 고추장, 매실된장, 매실절염, 매실젤리, 매실초콜릿 등 수십 가지 매실제품을 개발했다. 전국 처음으로 전통식품지정을 받았다. 농원을 가꾸면서 건실한 매실기업으로 키워갔다.

섬진강변 매화의 하얀 꽃물결은 청매실농원에서 절정을 이룬다. 매화여행은 농원의 뜨락과 오솔길을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농원 뒤 꽃비산에 오르면 섬진강 물줄기와 어우러지는 매화마을 풍경이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꽃길사이로 오가는 상춘객들도 풍경을 더 아름답게 해준다. 너른 매화농장을 정신없이 돌다보니 배가 허전하다. 올라가는 길목으로 벌교읍에 들르기로 했다. 보성을 여행할 때는 꼭 벌교에 들러 꼬막 맛을 보곤 했다. 흔히들 양념꼬막만을 꼬막요리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벌교의 꼬막 맛은 예로부터 벌교주먹 만큼이나 유명하다. 남도의 식탁이 모두 그렇듯, 벌교 역시 반찬 가짓수에 질리고, 식사 후 빈 그릇에 질린다고 하는데 같은 재료의 꼬막요리인데도 회인지, 조림인지, 무침인지, 그 작은 꼬막에서 얻는 맛이 일품이다.

이 꼬막 맛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벌교가 고향인 소설가 조정래다. 그는 장편소설 태백산맥에서 염상구가 벌교에 사는 외서댁을 겁탈하는 장면을 꼬막맛과 비유하면서 정사의 짜릿함을 이렇게 표현했다. "가심(가슴)이 찌리리 하드란 말이여…간간하면서 쫄깃쫄깃한 것이 꼭 겨울 꼬막 맛이시…얼큰하기도 하고 배릿하기도 하고…." (소설 태백산맥 원문 일부 발췌) 젊은 과부와의 정사의 느낌을 꼬막 맛으로 비유한 소설가 조정래는 역시 벌교 출신다운 기지이고 전혀 상스럽지 않다. 조정래 태백산맥문화관을 돌아보고 담장너머로 소설속에 등장하는 현 부자네 집과 소화의 집을 문지방을 넘고 있다. 마른 김이 담긴 대접에 참기름을 듬뿍 넣고 꼬막 회무침을 썩썩 비벼 먹던 향기가 집에 도착해서도 코끝이 화하다. 큰 수술 후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3월은 미래를 향한 큰 희망이다.

가로수 수난시대

취재수첩

정성현
사회부 기자
jung@jnilbo.com

"보기에는 좀 그래 보여도 이렇게 싹 다 깎아놓는 게 나무나 사람들한테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보다 관리를 세밀하게 해주면 돈도 더 들고요."

최근 '광주·전남 가로수 관리 실태'를 위해 취재하던 중 만난 한 수목 관리인이 기자에게 전한 말이다. 그는 가지 몇 개만 남기고 죄다 가지치기 한 나무를 가리키며 '이게 표준이다'고 말했다. 나무의 생장을 고려하지 못한 채 무참히 잘린 이 나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런 나무는 있을 수 없다. 과도한 가지치기는 나무의 에너지 생산능력을 훼손해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국제수목관리학회는 나무 생장 기간에 가지치기할 경우 나뭇잎의 25% 이상을 제거하지 말라고 권장하기도 한다.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 사람들' 대표는 "강전정을 한다고 해서 바로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버틴다'고 오해를 한다"며 "결국 가지치기란 살아있는 생명의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이므로, 잘못된 가지치기는 나무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국제수목관리학회의 표준을 우리나라 현장에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해 광주·전남지역 가로수 약 2100그루가 '가지치기'라는 미명 아래 고사한다. 가지치기 이유도 '간판을 가리거나 조망권을 침해한다' 등의 이유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과도하게 잘려나간 나무들은 사람들에게 이른바 '닭발·전봇대 가로수'라는 오명을 듣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도심 가로수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87.9%가 '우리나라의 가지치기 정도가 지나치다'고 답했다. 또 96.8%는 '인권이나 동물권과 같이 나무권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가로수는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그늘막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고 온실가스를 흡수하기에 '탄소중립 기조'에도 걸맞다. 이따금 여름이면 울창한 경관을 만들어주는 가로수길을 사랑하는 이들도 많다.

가로수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제대로 된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 국내 실정에 맞는 가지치기 안내서와 올바른 가지치기를 위한 전문가 양성 등이 마련돼야 한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가로수 수난시대'가 올해부터는 점차 사라지길 기대해 본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2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상예동 대왕수천예래생태공원에서 봄을 알리는 매화가 개화했다. 서귀포=뉴시스

독자투고

시민의식 성숙하면 화재진압 빨라진다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등은 지하주차장 등을 마련해 소방차가 진입하기 쉬워졌다. 하지만 차량 수가 많아지고 개인의 편리만을 생각해 정해진 주차공간을 벗어나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길목도 상당히 많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불편이 따를 수 있지만 각종 화재, 구조, 구급현장의 골든타임을 위해서라면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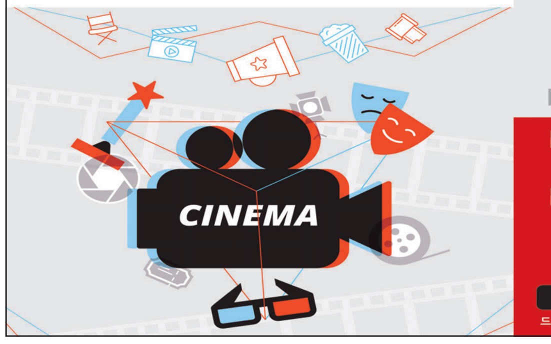
화재현장에서 성숙한 의식이 꼭 필요한 부분은 바로 소화전이다. 대부분 화재는 물을 이용해 진압한다. 보통 소방차량에는 3~4톤 정도의 물이 적재돼 있지만 차량의 물만으로는 큰 화재를 진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때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에 물을 급수해 물 부족 없이 불을 끌 수 있게 도와준다.

소방차의 한정된 물 저장능력과 설치된 소화전 부근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해 소방용수가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화재에도 불구하고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언론보도를 통해 종종 접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는 주·정차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주택가의 소화전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는 게 현실이다.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스스로 불법 주·정차를 안 함으로써 이웃과 사회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꼭 필요하다.

정현수〈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소방교〉

HAPPY MEMORIES
롯데시네마 충장로관
▶전 관 천연가죽 리클라이너 쇼파석 (커플석보유)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스푼더마켓 충장로점 062-222-7733



주차장 안내

전용주차장
<주간&야간> 신동아 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 첫영화부터 마지막 영화까지 !!!
제휴주차장
<주간&야간> 동아주차장, 파레스주차장 3시간무료
- 운영시간 : 오전 09:00 ~ 마지막 영화까지!!
<주간> 황금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 오전09:00~오후20:30까지
※3시간 무료 주차이후,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드롭탑&파파이스 이용시 1시간 30분 무료주차 가능(파레스·동아·신동아 주차장에 한함)

롯데시네마 충장로관

1관	교섭
2관	타이타닉/네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
3관	타이타닉/아바타:물의 길
4관	우리 사랑이 향기로 남을 때 네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 몬스터 하우스2:인비저블 피닉스
5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6관	메간
7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8관	영웅/교섭/상견니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
9관	영웅/다음 소희/유령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안길 12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한약방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6년근 홍삼 100% 60포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릎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